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National Bibliographies in the East Asian Countries

동북 아시아지역의 국가서지 현황

—한국·중국 및 일본의 서지통정—

구 자 영

이화여대도서관학과교수

【編譯者註】本稿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될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 專門會議 A(동양출판물의 서지통정—국가 서지의 역할)에서 發表될 論文을 미리 掲載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

本稿은 韓國을 中心으로 中國 및 日本에 있어서의 書誌統整現況을 綜合적으로 考察하는데 目的을 둔다. 論題를 接近함에 있어 現在 刊行中인 國家書誌, 記錄된 情報의 活用을 爲한 各種 書誌活動, 그리고 圖書館 資料整理를 爲하여 利用되는 基準의 세부문에 관한 狀況調查와 아울러 關聯 問題點과 可能性있는 改善策을 探求하였다. 비록 論題는 東北亞細亞에 관한 것이나 韓國을 集中적으로 취급하였다. 그 理由는 첫째로 본 고를 위한 資料蒐集過程을 통하여 中國이나 日本에 비하여 韓國事情을 알릴 만한 先行研究가 극히 貧弱한 것을 發見하였으므로 우선 國際會議에서 우리의 것을 알릴 必要性을 느꼈다. 둘째로 中國과 日本의 最近況을 設問紙 우측으로 多少 포착할 수 있었으나 滿足스러운 程度는 아니었으며 마침 두나라 代表들에 의한 直接的이고 正確한 報告가 있으리라는 事前 連絡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各註는 모두 省略하였다.

1. 現行 國家書誌와 書誌活動

1. 中國

中國에 관한 研究는 世界 여러 나라에 있어 오랫동안 地域研究의 重要한 對象이 되어왔으므로 中國研究 案內를 위한 書誌道具들이 比較的 體系的으로 發達되었다. 그중 *Contemporary China a Research Guide*는 臺灣, 香港 및 中國 本土에 關聯된 資料로 1945년~1963년 사이에 中國語, 日語, 英語 및 朝鮮어로 出刊된 各種 文獻을 詳細한 註解를 곁들여 收錄하였다. 2次大戰 以前의 資料를 爲하여는 有名한 *Annotated Bibliography of Selected Chinese Reference Works*가 存在한다. 이와 有似한 文獻案內가 相當數 存在하므로 中

國書誌, 藏書目錄, 索引誌, 綜合目錄 등 中國文獻 接近을 위한 書誌道具의 規明은 比較的 容易하다.

現在 臺灣에서 生産되는 出版物에 관한 書誌統整은 國立中央圖書館의 藏書目錄이 月刊 및 年刊으로 刊行되고 있는 中華民國出版圖書目錄을 通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國立中央圖書館은 納本業務를 通하여 出版物을 받아들여므로 比較的 完全한 書誌統整을 하고 있는 셈이다. 同 圖書館의 中華民國期刊論文은 몇몇 다른 圖書館이 生産하는 索引誌와 함께 定期刊行物 內容의 接近을 容易하게 한다.

臺灣의 書誌活動은 國立中央圖書館을 中心으로 National War College Library, 臺灣市立圖書館, 國立臺灣大學校圖書館 등 수삼의 圖書館이 分擔하고 있다. 國立中央圖書館이 有一한 國家圖書館으로 위에 指適한 國家書誌 以外에 各種 目錄을 生産하며, 最近에는 綜合目錄의 生産과 아울러 1971년부터 納本에 근거한 印刷카아드를 作成 販賣하기 始作하였으며, 國外로부터의 註文과 參考問議를 處理한다. 圖書館의 業務를 알리는 機關誌로 *Bulletin*(中國語版)과 *Newsletter*(英語版)을 出刊하고 있다.

臺灣의 境遇 比較的 잘 組織된 國家書誌體制, 中央 集中化된 目錄奉仕, 國家綜合目錄 및 多様な 書誌奉仕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書誌統整問題가 거듭 論難의 對象이 되고 있다. 重要한 問題點은 여러 書誌資料들 사이에 相互調整이 不足한 點, 最新性的의 결여 및 體制上의 허점을 들 수 있다. 또 國家書誌의 範圍가 極히 制限되어있으며 出版界에서 有來하는 商業書誌가 없다는 것도 問題點이 되고 있다.

2. 日本

日本の 書誌奉仕는 그 根原이 多様하며 잘 組織되어

있어 現在 資料가 過去資料를 함께 國家的인 次元에서 통솔할 수 있도록 發達되어 있다. 日本 研究를 위한 文獻案内가 상당수 存在하므로 書誌類의 接近은 極히 容易하다. *Guide to Japanese Reference Books*(日語 및 英語版)와 *KBS Bibliography of Standard Reference Books for Japanese Studies*는 詳細하고도 批評的 評價를 주는 充당한 案内書들이다.

日本은 國家機關과 個人商業機關에서 生産하는 國家 書誌들이 現在 出版物의 統整을 分擔하고 있다. 가장 重要한 것은 日本國立國會圖書館이 出版하는 納本週報와 全日本出版物總目錄으로 納本業務를 通하여 蒐集한 單行本, 定期刊行物, 視聽覺資料, 特殊資料 등 各種 情報媒介體를 網羅하여 收錄한다. 商業書誌로는 出版年鑑, 出版News 및 日本總合圖書目錄이 있다. 各 主題 關係의 定期刊行物 記事에 관한 接近은 雜誌記事索引을 通하여 可能하게 되어 있다.

2次大戰 以後로 美國式 相互協力體制의 發展을 期하였으므로 상당수의 綜合目錄이 生産되었다. 國立國會圖書館의 新收洋書總合目錄을 위시하여 多様な 綜合目錄이 日本 圖書館 資料의 相互分擔利用을 可能하게 하고 있다.

相當히 양호한 書誌條件을 갖추고 있는 日本의 問題點은 주로 書誌對象資料의 限界에 있다. 즉 增加一路에 있는 出版物이 記錄되지 않은 體 남아 있다는 點이다. 또 다른 重要한 問題點은 圖書館 資料 整理上 統一性의 缺如이다. 日本에 있어서는 큰 圖書館들이 오랜 세월동안 利用해오던 特有의 目錄方案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目錄規則의 標準化가 어려운 實情이다. 컴퓨터體制를 導入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더욱 심각한 淨點이 되고 있다. 日本國立國會圖書館은 部分的인 自動化 計劃에 의해서 機械可讀目錄情報(MARC)의 活用, 書誌生産의 効率化 및 中央集中의 目錄情報 分配에 의한 標準化를 期하고 있다.

3. 韓國

國內生産의 出版物을 記錄하는 重要한 書誌로는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과 韓國出版年鑑을 들 수 있다. 또 最近에 出刊된 國立中央圖書館의 韓國저지종합색인과 韓國민족문화연구소(고려대학교)의 韓國論著解題 및 學術院의 學術總覽은 主題書誌가 不足한 것을 다소 완 화시켜주고 있다. 定期刊行物 文獻의 接近을 위한 中 心點은 국내간행물기사색인이 되고 있으나 過去資料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를 위하여는 언어의 장해 는 있으나 Elrod의 *Index to English Language Periodical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 1890~1940*과

보유관이 가장 보편적인 資料가 된다.

韓國의 政府刊行物은 最近에 이르러 그 量, 主題 및 體制上의 大 變化를 일으키고 있다. 1970年 以來로 政府刊行物은 全體 出版物의 절반 以上으로 增加하고 있으며 學術, 教養 및 文化 分野에 걸친 多様な 內容의 資料가 生産되고 있다. 그러나 政府刊行物의 生産, 普及 및 運營을 위한 未解決된 問題들로 因하여 研究資料로서의 有用性을 充分히 發揮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現在 年間目錄인 정부간행물목록만이 있을 뿐이다. 學位論文과 같은 特殊資料가 國會圖書館의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총목록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調査記錄된은 書誌貧困狀況중 多幸한 일이다.

國內의 圖書館 協同活動은 아직 초기적 段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1971年에 發刊된 외국도서종합목록이 있으나 이것은 주로 서울에 위치한 一部 圖書館의 藏書目錄으로써 眞實한 意味의 國家綜合目錄과는 相當한 거리가 있다. 特殊分野에 局限되어 있으나 과학단지종합목록과 외국과학기술잡지종합목록이 계속 出刊되어 相互貸借의 基盤을 유지해주고 있다. 資料購入에 所要되는 豫算이 不足하며 外國資料에 대한 依存度가 높은 國內實情에서 相互對借와 共同收書計劃은 가장 現實的인 經濟的 手段임이 認定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綜合目錄 開發과 維持가 不進한 것은 극히 有感스러운 일이다. 學術雜誌綜合目錄과 축차간행물종합목록과 같은 有用한 道具의 계속 刊行이 바람직하다.

韓國에서 刊行된 過去資料에 接近하기 위한 書誌方案은 多様하나 本稿가 現在資料의 統整만을 目標로 하고 있으므로 언급을 省略한다. 단지 韓國出版物을 記錄하는 보다 綜合的인 書誌統整에 관한 간결한 說明을 代身하기 위하여 重要한 書誌 몇개를 指適한다. Courant의 *Bibliographie coréenne*과 그 補遺版, 國立中央圖書館의 장서목록, 古書目錄, 鮮本解題, 古文書解題와 國會圖書館의 韓國古書綜合目錄과 韓國新聞雜誌總目錄을 들 수 있고 더욱 詳細한 說明을 위하여서는 韓國參考圖書解題를 권한다.

國內書誌統整에 있어 重要한 問題는 보다 적절한 國家書誌를 發展시키는데 있다.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과 韓國出版年鑑이 그 範圍, 記錄方式, 配列 및 刊年에 이르기까지 重復되고 있어 실상 그 惠澤이 局限되어 있다. 現在 國內刊行物 生産 速度로 보아 總目錄을 改善한다면 적절한 統整方案이 될 것이다. 적어도 月刊으로 하며 季刊 및 年刊 累加目錄을 作成할 것, 차례로 各 項目에 주는 書誌情報에 더하여 KDC와 DDC 번호 및 부기입 項目(Tracing)을 주어서 單純한 書誌의 國內出版物에 관한 目錄情報의 根源이 되도록 하며,

세계로 非圖書資料類의 媒介體를 廣範圍하게 收錄할 수 있도록 制度的 後援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다른 問題點은 國家次元에서의 指導力이 弱한 점이다. 世界 여러 나라에서 施行되고 있는 印刷카아드 및 書誌情報奉仕가 결여되고 있다. 國立中央圖書館의 法的 位置의 改善이 時急하다. 全 世界的으로 國家圖書館을 확장 強化하여 書誌奉仕를 國家的 次元에서 中央集中化하는 傾向과 아울러 世界文獻統整(UBC)을 위한 ISBD(國際標準書誌記述)가 作成되어 利用되고 있는 지금 國內의 書誌業務는 극히 分散의이고 相互調整이 결여되어 있으며 비효율적이다. 國立中央圖書館의 強化는 必然的으로 斷行되겠지만 우선적으로 圖書館의 相互協力 및 相互調整을 통한 書誌奉仕의 改善과 効率化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圖書館界 및 書誌關係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專門團體를 中心으로 理解와 協力を 통하여 보다 影響力있는 發言權을 질러 나가는 것도 重要的 解決方案이 될 것이다.

國內書誌活動은 政府機關, 專門團體 및 商業出版社의 세 종류에 根源한다. 國立中央圖書館과 政府 後援의 研究機關들은 現在 生産되는 印刷物의 統整에 가장 큰 몫을 이행한다. 專門團體의 書誌活動은 그 性質, 主題分野 및 範圍에 있어 多様한데 지금까지의 重要的 業績은 韓國學 研究를 위한 過去資料의 整理에서 가장 뛰어나 있으며 主題文獻 관리에는 극히 소홀한 狀態이다. 또 商業用目錄은 그 數나 體制에 있어 改善의 必要性이 크다.

書誌活動에 從事하고 있는 機關으로 國立中央圖書館, 國會圖書館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는 선위에 있다. 古書整理를 주로 하는 高麗大學校 附屬의 民族文化研究所, 서울大學校 附設 東亞文化研究所, 中央大學校의 韓國學研究所 등의 業績이 주목된다. 專門團體로 韓國圖書館協會와 韓國書誌學會가 文獻統整事業에 勞力하고 있다.

II. 韓國의 書誌基準

韓國에 있어 書誌作成의 歷史上 高麗의 八萬大藏經目錄인 大藏目錄은 重要的 基點이 되었다. 1248년에 制作된 이 目錄은 3卷(木版本)으로 構成되었고 主題記列에 項目記述는 書名(題目), 譯者의 國名 및 姓名所在函의 番號, 總枚數 등을 포함한 극히 組織的인 書誌이다. 李朝 500年을 통하여 수많은 書誌가 生産되었으며 오랜 書誌作成의 歷史를 통하여 다져진 書誌記述上의 形式과 基準이 아직도 殘存하고 있다. 비록 도서관 學의 發展의 組織的 方法은 中世에 根據한다 하더라도 圖書館 資料整理에 있어 標準化의 重要性을 認識하기

始作한 것은 아마도 公共圖書館의 概念과 같이 最近의 일이다. 2次大戰 以後에 圖書館 資料와 利用者의 數가 增加함에 따라 傳統的 方法의 限界를 認識하고 새로운 方案의 開發이 試圖되었다. 그 중 朴奉石氏의 朝鮮東書編目規則과 朝鮮十進分類法은 가장 널리 普及되었다. 1960년대 初期에 韓國圖書館協會는 特殊委員會를 設置하여 새로운 目錄規則과 分類體系를 發展시켰는데 그 結果로 韓國目錄規則과 韓國十進分類法이 生産되어 國內 圖書館에서 使用되고 있다.

새로 作成된 目錄規則은 1961年 파리 國際目錄原則會議에서 決議된 著者를 記入原則에 근거하여 展開되었으나 短時日에 성급히 제작되어 여러 가지 모순과 결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大部分의 公共 및 學校圖書館이 이 規則에 따르고 있으나 比較的 豫算이 豊富한 大學 및 特殊圖書館에서는 英美目錄規則을 利用하고 있어 圖書館 資料整理上 相當한 差異가 生기고 있어 相互協力計劃履行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 우선적인 解決方案은 韓國目錄規則을 계속적으로 확장 修正할 수 있는 制度的 財政的인 뒷받침을 마련하여 統一基準으로 採擇하는 것이다. 國家綜合目錄, 印刷카아드, 기타 中央集中化된 目錄情報奉仕를 可能케할 基礎가 目錄作成의 標準化에 있다는 것을 再認識해야 할 것이다.

國內에서 使用되고 있는 分類法은 1920年代初에 導入되어 修正 利用되고 있는 DDC, 韓國十進分類法, 美國議會圖書館分類法, 日本十進分類法, 四部法 등 多様하다. 1975年度 한국도서관통계에 의하면 DDC의 使用이 대학도서관 42%, 特殊圖書館 34%, 그리고 公共圖書館 5%로 나타나 있으며 韓國十進分類表의 利用은 大學圖書館이 51%, 特殊圖書館 47%, 그리고 公共圖書館 94%로 되어 있다. 가장 많이 利用되는 두 종류는 多幸히도 原則上 同一한 體系이므로 서로를 接近시키는 方向으로 勞力하면 分類上의 統一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圖書館 資料整理와 關聯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主題名 表記에 있다. 統一된 表記方案을 論하기에 앞서 研究圖書館에서 使用할 수 있는 主題名 標目表의 不在는 研究資料의 活用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問題로 認識되어져야 한다. 이제철씨의 주제명표목표는 초판(1961) 이후 修正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有用性이 喪失되어 있다. 최근과 같이 學問이 高速으로 發達 및 變遷되는 狀況속에서 主題名標目表는 계속 확장과 修正을 거치지 않으면 有用性을 維持할 수 없다. 韓國圖書館協會가 學校圖書館用 主題名標目表 作成을 經驗의 土臺로 研究圖書館用을 착수하도록 기대를 걸어 본다.

近來에 거듭 거론되는 圖書館自動化도 國內에 있어

서는 時間과 物質面에 있어 未來의 計劃이 될 것이다. 이미 科學園地內의 圖書館들의 相互協力 活動을 통하여 컴퓨터에 의한 藏書目錄이 生産되었고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의 컴퓨터에 의한 SDI奉仕가 施行되고 있어 부분적 自動化的 成功의 事例가 存在한다. 國內圖書館들이 相互協同을 통하여 圖書館網을 組織한다면 機械化에 의해 상당한 惠澤을 期待할 수 있다.

未來의 機械化에 對備해서 보다 우선적으로 現實的 惠澤을 위하여서 圖書館資料 整理의 標準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目錄作成, 圖書分類 및 主題名表記에 있어서 全國的으로 統一性있게 活用될 수 있는 基準의 開發 普及이 國內 圖書館界의 가장 時急한 課題인 것이다.

Ⅲ. 問題點과 展望

韓國을 中心으로 臺灣과 日本의 文獻統整事業을 調査한 結果 몇가지의 共通問題點과 解決을 위한 協力の 可能性을 發見하였다. 1960年 以來로 全世界 圖書館界는 圖書館 資料整理에 있어서의 標準化와 圖書館 奉仕에 있어서의 中央集中化(國家, 地域 및 諸世界 單位로) 傾向을 立證하고 있다. 이런 傾向의 惠澤은 多様하므로 앞으로 더욱 擴大 強化될 추세이다. 이런 狀況을 고려할 때 극동지역 세나라의 協同과 相互調整은 意味 있는 일로써 熟考할 價値가 있다.

세가지 문제점 중 첫째는 東洋資料를 圖書館에서 整理하든지 書誌로 作成할 때 일어나는 問題이다. 예를 들자면 세나라에서 洋書와 東書를 區分하여 目錄規則을 利用하며 目錄司書로 區分되는 경우가 許多하다. 대체로 著者主記入의 原則에 입각한 目錄作成을 하나 傳統的으로 利用해 왔던 書名主記入도 계속 利用되고 있다. 1975년에 있었던 日本圖書館館務者會議에서 書名主記入(Title Unit Entry)의 方向으로 轉向할 提議가 거론 되었으며 日本國立國會圖書館을 비롯하여 多數의 圖書館이 贊成을 表示하였다.

書名主記入은 우리 나라와 臺灣의 圖書館들(특히 過去 資料 所藏의 比重이 큰 圖書館)에서도 주장하는 것이다. 오늘과 같이 多様な 發生地의 情報를 取扱하는 圖書館에서 우리의 傳統만을 固執할 수는 없으므로 著者主記入의 大原則을 추종하는 것은 우리를 自身の 利益을 爲하는 길이다. 단지 東西洋의 圖書館業務上 다른 점을 指適하기 위한 하나의 例로 들었을 뿐이다.

東洋資料의 特性을 고려하여 적합한 基準을 設定하는 것은 極東地域 司書들의 任務이다. 地域的 標準化는 地域圖書館은 勿論 全世界圖書館界에 대한 貢獻이 된다. 이미 相當한 成功實績을 자랑하는 美國議會圖書館의 分擔目錄作成과 유사한 方案을 適用하여 書誌情報의 交換을 計劃하며 나아가서 漢字文化圈의 出版物을 機械 處理하기 위한 機械可讀形式을 共同으로 開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둘째 문제는 藏書蒐集과 關聯된 것으로 地理的으로 가까이 위치하면서도 極東資料의 選定과 購入에 있어 相存하는 難點이다. 最近 強調되는 學問間 研究의 重要性和 學問 境界의 分散現象은 研究資料의 性質을 變更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日本社會에 관한 研究는 哲學的, 歷史的, 地理的, 種族上의 比較 分析을 위하여 韓國과 中國 文獻을 多數 必要로 할 것이다. 極東地域 研究가 점차 活發해 지는 것을 감안하여 地域生産의 資料를 確保하는 것은 研究資料 蒐集上 有意 점이며 이를 위하여 이미 國際交換을 強化하고 나아가서 地域 圖書館資料의 內容을 詳細히 記述하는 圖書館명부의 作成을 計劃함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極東地域 司書教育을 위한 協力の 可能性이다. 지난 20餘年 동안에 美國의 先例를 基盤으로 한 圖書館學科 및 圖書館學校가 상당수 創設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하여 洋書에 관한 壓倒的 利用에 對處하기 위하여 이들 司書教育機關의 教科課程은 대체로 西洋의 것을 基礎로 하였으므로 東洋資料의 特徵이 多少 無視된 때도 있었다. 最近에는 極東地域 生産의 研究資料가 豊富해지고 있으므로 東洋資料의 特徵을 強調하는 同時에 西洋에서의 進展을 導入한 教科課程으로 修正되고 있다. 특히 情報科學의 導入으로 繼續 修正作業이 이루어질 것이다.

極東地域 司書들의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教科課程을 相互調整하고 特殊한 共同計劃(言語教育, 分類目錄法 등)을 고려할 適時인 것 같다. 極東地域 司書教育을 위한 相互協力は 極東地域 나라들 안에 있어서 司書職의 昇格을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서 全世界 圖書館界에서도 相當한 地位向上을 招來할 것이다. 能力있는 地域專門家의 樣成과 地域生産資料의 보다 活潑한 活用 및 圖書館 資料整理上의 標準化를 위하여 極東地域 세나라 司書職의 資源을 洞用하여 相互調整 및 協力を 實踐할 수 있는 組織體를 構想하는 것은 價値있는 計劃이 될 것이다.